

AMCF 선교 협력 위원회

M · S · O

Mission Support Organization

하나님 조국을 지켜 주옵소서!

세계 군인들 한국 군선교 현장(MEO)에 오다

112번째 L국 MCF 설립되다

MCF 임원들 각국 MCF회원들과 만나다

'07 영어캠프 사역활동

몽골 MCF 10주년 기념대회

터어키 순교현장

통권 11호

2007 NO. 3



“하나님 조국을 지켜 주옵소서!”



금년은 6·25 한국전쟁 57주년을 맞이한다.

6·25 전쟁은 1945. 8. 15 한반도를 강제 점령하고 있던 일본의 패망에 따라 미·소 냉전의 첨예한 대립국면에서 북한 공산정권의 김일성이 스탈린, 모택동의 사주와 지원 하에 1950. 6. 25 기습적으로 38도선을 돌파 남침한 것을 한국과 참전국이 함께 막아내어 우리가 공산화 문턱에서 북의 의도를 좌절시킨 전쟁이다. 이 전쟁은 인류역사상 유례가 없는 동족상잔으로서 한국군과 유엔군 전사(사망) 777,360명, 부상 555,022명, 실종(포로) 42,769명, 민간인 사망 373,599명, 부상 229,625명, 실종(남북) 387,744명 등 수많은 인명피해와 80%이상의 국토가 폐허가 되는 엄청난 참화를 가져왔고 1000만 이산가족, 320만 명의 월남 동포, 30만의 미망인, 10만 명의 어린이가 고아가 되는 등(출처: 국방부 전사편찬연구소) 모든 국민에게 한없는 고통을 안겨주었다. 이제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가고 전쟁을 치르지 않는 세대들이 주역이 되었다. 지금 세상은 이념전쟁으로 국론이 극도로 분열되고 안보불감증은 위험수위에 도달했다. 오늘 조국의 현실 앞에서 많은 교단과 교회, 군선교 유관기관들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조국안보를 위한 각종 집회와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호국보훈행사

제 53회 민·관·군 현충일 합동예배

6. 3(주일) 14:00에 국군중앙교회에서 현역, 예비역, 수도권 지역 거주 KCMF 회원 및 가족, KVMCF, 군선교연합회, 보훈처(한국보훈선교단), 경찰청 경목, 국군중앙교회 성도 등 500여 명이 모였다. 한국기독교군인연합회 주관으로 제1부 예배시의 사회는 공)소장 고덕천(KMCF 사무총장), 기도는 정인균 장로(KVMCF 연합회장), 성경봉독은 육)대령 정봉대(KMCF 부총무), 찬양은 공군연합성가대, 설교 박종화 목사(경동교회 담임), 축도 설영현 목사(한국군종목사단장)가 하였고 다함께 애국가를 제창한 후 2부 친교시간을 가졌다.

조국의 위기 때마다 목숨 바친 순국선열들, 전몰장병들, 호국용사들, 순교자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으로 오늘의 번영을 가져왔으며 우리 또한 후손들에게 보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미래와 신실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겠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다.



호국보훈의 달(6월) 민·군 연합집회

대구집회

한국군선교연합회(이사장 곽선희 목사) 대구지회(이사장 김태범 목사 / 지회장 김승렬 장로) 주관으로 대구 삼덕교회(담임 김태범 목사)에서 6. 4(일)~6(수) 간 대구지역 성도들과 2군 지역 국군장병 대상으로 곽선희 목사, 신용백 군종목사(자운대학교 담임)가 귀한 말씀을 전하였고 이필섭 장로(AMCF 회장)는 간증시간을 가졌다.



대전집회

대전지역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성회가 6. 24(월)~30(토)간 대전순복음교회에서 개최되었으며 이 집회에 이필섭 장로(AMCF 회장), 정인균 장로(KVMCF 회장), 이준 장로(MSO 위원장), 김영덕 장로(MSO 사무총장)가 강사로 참석하였다.



경북동부집회

장로교 합동측 경안노회 남전도회 주최 나라를 위한 연합예배가 6. 10(일) 16:00 경북 영덕교회에서 이준 장로(MSO 위원장)가 초청되어 설교 및 간증예배를 드렸다.



6·25 상기 기독교장병 구국성회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아 한국군종목사단(단장 설영현 목사)과 한국기독교군인연합회(회장 박홍렬 대장) 공동주최로 KVMCF/KMCF 창립51주년 제17회 6.25상기 기독교장병 구국성회가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왕상19:9)라는 주제로 6.21(목)~23(토)까지 오산리 최자실 기념금식기도원에서 개최되었다. 많은 기독교장병들, 현역들, 예비역들, 군무원, 군인가족들, 외국인들, 일반성도들이 모여서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고 평화적인 통일과 군복음화와 인류복음화를 위해,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함으로 오산리 기도동산이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했다.

금번 성회는 설영현 목사(한국군종목사단장), 오정현 목사(사랑의 교회), 장경동 목사(대전중문교회), 원베네딕트 선교사(유스미션), 김문훈 목사(포도원교회), 권경환 목사(오산리기도원장), 박성민 목사(CCC대표)의 말씀선포와 특별 심야기도회, 새벽기도 등 시간 시간마다 은혜가 넘치는 성회였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실 줄 믿는다.

특별히 2007년은 한국 OCU/MCF 51주년인 동시에, 1907년 평양 대 부흥 100주년이 되는 해로 이 땅에 부흥의 대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우리 모두는 지난 5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과 민족 위에, 군대와 국군장병 위에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6·25 한국전쟁 진실 알리기 운동” 전개

한국예비역기독교군인회(KVMCF; 회장 정인균 장로)는 6·25 한국 전쟁 57주년을 맞이하여 전후세대에게 6·25 한국전쟁의 아픔과 교훈을 전파, 올바른 역사인식과 안보정신의 고취를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KVMCF 산하에 6·25 한국전쟁 진실 알리기 운동본부(본부장: 김순옥 예비역 해군대령)을 조직했고 금년 2월 6일 국민일보와 공동으로 실행하기로 합의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운동본부에서는 <6·25란 무엇인가?>라는 책자를 인쇄 발간하여 현재 35만부가 배포되었고 금년에는 “6·25전쟁의 진실”(20분)의 제목으로 동영상도 제작하여 배포했다.



세 번째 외국 기독교인들이! 한국 군선교 현장 참관하다

Military Evangelism Observation Program

환영사

이준장 (전 국방장관, MSO 위원장)



MEO 프로그램에 참가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들의 만남은 우리들의 생각과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택함 받은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야 하고,
 한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명은 분명합니다.
 세계의 기독교인들을 통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자신이 성령 충만해서 영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한국과 한국의 MCF를 이해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은 가난했던 5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해진 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시련과 진통을 겪은 후
 놀라운 부흥과 발전을 거듭한 나라입니다.
 여기에는 세계 선교의 사명이 함께 주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선교도 그 일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라의 복음전파에 앞장서는 일꾼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의 나라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참가자 현황

- 인도네시아(2) 예)해병소장 Nono Sukarno, 예)해군대령 Eddy Tartiono
- 방글라데시(2) 예)육군 준장 John Gomes, 예)해군 준위 Christopher Adhikary
- 캄보디아(2) 준장)Nguon Sam, 소령 Petros Uon Chhayvra
- 태국(4) 대령 Nakorn Klinkhamhorm 부부, 소령 Anun Bonmakitimsak 부부
- 파키스탄(1) 예)해군 중령 Saleem Akhtar Mathew
- 우즈베키스탄(1) 예)중령 Bikbov Oleg
- L국(2) 예)장교 P목사, 예)대위 P(여)
- M국(2) 예)경찰소령 W. K. S. 예)경찰소령 H. K.
- 미국(4) 예)해군 대령 Stan Mincks 부부, David Baca 부부 등 9개국 20명이 참관하였고 또한 주한 외국인 신학생 및 선교사 7명이 통역요원으로 참가하였다.

Military Evangelism Observation Program



2007 제 3회 MEO Program은 기독교장병 6·25상기 구국성회에 맞추어서 6. 18(월)~24(주일) 6박7일 간 MCF 미설립 및 활동이 미약한 국가의 기독교인 지도자들과 목사들을 초청하여 한국 군선교 현장을 견학하고 체험케 하여 참가국의 MCF 설립 및 MCF 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이었다. 금번 초청된 사람들은 선교환경



이 극도로 열악한 회교권 국가, 사회주의 및 불교권 국가 대표들이며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MEO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었다.

이들은 국군중앙교회, 오산리 영산수련원 등 9개소에서 짧은 일정이지만 한국, 세계 군선교 활동 소개 (AMCF, MSO, KMCF, KVMCF, MEAK 등), 6·25상기 기독교장병 구국성회 참석, 안보견학(1사단 전방지역), 군윤리 리더십 교육 및 제자훈련(성경 공부, 기도, 전도 등), 참가 국가별 소개, MCF 설립, 활성화도의 및 간증, 군 신병 세례식 참관(30사단), 임원들과의 친교시간을 가졌고 한국의 문화탐방(경복궁, 전쟁기념관, 한국 민속촌, 외국인 선교사 묘역, 삼성전자) 및 민박을 통해서 한국문화를 조금이나마 이해하도록 노력하였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한국에 역사하신 은혜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으며, 한국의 군선교 현장에서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아 본국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 MCF 조직과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하였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섭과 인도하심으로 모든 행사를 잘 마쳤으며 하나님께 먼저 깊은 감사



를 드린다.

이번 사역에 많은 분들의 지원, 여러 기관의 기도와 헌신,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수고가 깊게 배어 있다.

국방부, 1군단 예하 여러 부대, 국군중앙교회, 영산수련원 등 많은 분들과 교회, 기관의 지원에 감사드리며 특별히 초청된 군인들의 항공료 전액을 부담 해주신 국군중앙교회(담임 홍석



훈 목사),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께서서는 그 바쁜 중에도 주일예배(24일)에 참석한 MEO팀의 대표들을 당회장실로 초청 직접 격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금번 MEO Program은 회교권 4개국 대표들과 국가마다 장군, 대령 등 고급간부들이 대거 참석함으로써 귀국 후 성과에 기대가 된다.



참가자의 소감



M국 예)경찰소령 W. K. S.

초청해 주어서 감사하며 한국의 군선교 현장을 보고 그저 놀라울 뿐이다. 불행하게도 M국에서는 기독교인회 운동은 하지 못하고 있다. 불교이외의 다른 종교운동은 정부에서 엄격히 금지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MCF운동이 일어나도록,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기를 위해 기도를 부탁한다. MCF의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움이 필요하다

L국 예)장교 P목사

초청해 주어서 감사하다. 한국 군선교 현장을 통해서 큰 충격과 감명을 받았으며 한국과 한국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알게 되었다. 여기 오기 전 심장이 매우 아팠는데 많은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셔서 하나님께서 고쳐 주셨고 이제 심장의 고통이 없어졌다. 감사를 드린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음의 문을 열어 주시기를 기도를 부탁한다.

미국 예) 해 대령 Stan Mincks 부부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3시간동안(개회예배) 앉거나 서서 찬양하는 모습은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 중에 가장 인상 깊은 예배였다. 열정적이며, 솔직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사랑, 민족적 긍지, 겸손이 기독교인과 군인들에게서 느껴진다. 그러나 경제적 성공이 물질적 사고로 흐르지 않도록 기도해야할 것이다.

우즈베키스탄 예)중령 Bikbov Oleg MCF회장

사랑하는 형제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형제와의 훌륭한 만남과 우리들의 우정을 시작케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이번 교육은 우리지역 MCF에 새 비전을 주었습니다. 나와 나의 형제들은 여러분의 자상한 마음과 진심어린 사랑과 사심 없는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빕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태국 기독교군경 가족들 방문

태국은 강한 불교권 국가로서 기독교세가 매우 약한 국가인바



차이코론 장군(기독교군경연합회장)이 태국 기독교군인들을 한국에 보내 한국 군선교 현장을 보게 함으로서 국내 군선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겠다

는 소식을 전함으로 MSO는 그 제의를 수락하여 실시케 되었다. 차이코론 장군부부와 피사눌룩 회망교회 담임목사 Sitichai Wongverayuth부부 등 16명이 6. 23(토)~6. 27(수) 간 한국을 방문하여 MSO현황 설명, 군선교 현장 참관(MEO Program 중 국가토의 참가, 군 신병세례식 참관, 육사 방문) 여의도순복음교회 주일예배참석, 문화탐방 등 일정에 따라 한국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군선교의 현장을 볼 수 있도록 안내했다. 방문을 통해서 양국의 우의와 MCF활동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출국에 앞서 차이코론 장군이 수고한 MSO 관계관을 위한 오찬에서 인사말을 통해 한국 MSO 여러분의 친절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많은 것을 보고 느꼈다고 하였다. 방문을 통해서 태국 MCF 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L국 MCF 112번째 설립되다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 가운데 112번째 MCF를 설립한 L국이 보고

5. 20(주일) 16:00~20:00에 L국 수도에 위치한 Evangelical Church에서 L국 MCF 요원 10명, 캄폰 목사 부부, 한인 선교사 2명(이재울 선교사 부부), 찬양 진행요원 8명 등 총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L국 MCF 창립예배(16:00~17:40)를 드렸다.



찬양으로 시작하여 대표기도는 캄포빙 목사(Khampouvieng, 부총회장, 예비역 중위), 설교는 캄폰 목사(Khamphon, 국가 기독교 총회장), 국가와 민족 및 군을 위한 중보기도, MCF요원 개개인에 대한 축복기도와 기념품 전달, 기념촬영 후 창립 축하만찬(18:00~20:00)을 중국식당에서 24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신앙생활하기가 심히 어려운 이곳에 주님께서 때가 됨에 뿌려놓은 씨앗들을 불러 모으셔서 MCF 설립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제 막 태어난 MCF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가 요청된다.



MCF 임원들 여행 중 각국 MCF 회원들 만나다

MSO 임원들은 공·사 간에 외국에 여행할 때는 그곳의 MCF회원들을 찾아 만나면서 위로와 격려, 친교의 시간을 가짐으로서 MCF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장용관 안수집사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사마르칸트에 서 울대학교 사범대학 한국어 교사 지도자 과정 교사실습 및 연수차 (14명) 방문(4. 18~24)하여 우즈베키스탄 MCF 회장을 만나 MEO Program을 소개하면서 초청장 전달하고 위로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김덕수 장로(MSO 인터렉션 팀장)는 방진관계회의 참석차 중남미지역 출장 중(3. 22~31)에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의 MCF 대표들을 만나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권안도(예)육군중장, MSO국제 부위원장)집사는 국제방위산업(무기)전시회 참가 차 터키(5. 22~26)출장 중에 많은 어려움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터키의 믿음의 장교들을 찾아 만나서 위로와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신경우 중령(MSO Africa 차장)은 Africa 우간다에서 Smile Leadership Center 주관의 세미나에 참석(5. 22~6. 4) 후 그곳의 여러 MCF 멤버들을 만나 좋은 친교의 시간을 가졌으며 2004년 세계대회에 참가했던 느미니 장군(Uganda, Maj Gen, Tumwine Elly)은 4성 장군으로 승진하여 국가의 중요한 직책을 수행 중임을 알려왔고 귀국길에는 남아프리카 VP인 피터 로렌스를 만나 그의 집에 민박하면서 좋은 친교시간을 가졌다.

몽골 MCF 10주년 기념 행사

5. 25(금)~26(토)간 몽골 MCF(Centurions Ministry)
10주년 기념대회가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진행되었다.



몽골 울란바트르에서 몽골 MCF(Centurions Ministry) 창설 10주년 기념행사가 “십자가 군 병들이” 찬양대의 찬양으로 시작되어 몽골 MCF회장 간투무어(예) 중위)의 인사말과 프로이드(CCC몽골 책임자)의 기도, 미국, 한국 등 여러 축하객들의 축하인사, AMCF 회장의 Vision 선포 순서로 기념축하예배는 감사와 감동으로 진행되었다.



보고를 통해 몽골 MCF는 지난 10년 동안 5명으로 출발했던 백부장 사역은 100여명이 되었고 8명의 Full Time Staffs과 60명의 협력 동역자들이 함께 매년 1,000여명의 사관생도들과 하사관, 장교, 군 가족들을 초청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사관생도들에게 영어교육, 리더십 강의, 크리스마스 행사, 예수필름 상영 등 문화 활동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몽골군에서는 MCF가 리더십, 윤리, 경영 등에 좋은 강의를 제공하는 기구로 인정받고 있으며 국내 군선교 뿐만 아니라 인접국인 북한, 중국, 러시아 군선교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놀라운 선교비전을 보고하였다.



이 행사에 한국에서는 이필섭 회장(AMCF 회장)부부, 이학수 목사(MEAK 사무총장), 김영덕 장로(MSO 사무총장)부부, 김시호 장로, 홍사영 장로, 김종필 집사부부, 정남기 집사, 황인규 중령,



박원규 중령, 유경숙 중령 등 13명이 참석하였고 전 북미 VP였던 Dees (예) 소장, CCCMM Director), ACCTS Staff Don

Snow, Jim Greshel 부부, Rick Ryles 부부 외 다수의 외국인이 참석하였다. 하나님께서 몽골 군선교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한다.



“여호와께 드리는 찬양축제”

5. 3(목) 11:00 육·해·공군 본부교회에서 국군기독부인회 주최로 “여호와께 드리는 찬양축제”가 개최되었다. 22개 팀, 2300여명이 성가발표를 하였으며 국군중앙교회는 2개 팀이 참가 (현역 기독부인 팀, 예비역 기독부인 팀)하였고 MSO에서는 이계심 권사(예비역 팀 지휘)와 다수가 참가하였다.



English Camp 사·역·활·동

MSO에서는 세계 각국의 MCF설립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역으로 6월은 국내에서 실시하는 한국군선교현장참관(MEO)활동(3p~6p참조)과 7~8월(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미국국민교회와 국내교회 및 선교기관들과 함께 영어교육(English Camp) 및 유용한 도구(의료선교활동 등)를 통하여 군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금년에도 세계 각국에 영어캠프 활동이 시행되는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한다.

▶ 캄보디아

구 분	부 대	기 간	참 가 단 체
English Camp(1)	911 특수전부대	7. 9~20	MSO, Ohana Foundation
English Camp(2)	11여단사령부	7. 30~8. 9	MSO, 백석대학교회
English Camp(3)	기갑여단사령부	8. 6~10	MSO, LA군사랑선교회
영어교사강습회	프놈펜중고등학교	7. 18~19	MSO, Ohana Foundation
Leadership 특강	911 특수전부대/11여단사령부	7. 17~18/ 8. 8	MSO
Medical Support(1)	11여단사령부/911 특수전부대	7. 5/ 7. 6/ 7. 9	MSO, 선린병원, 선한이웃병원, 사랑의교회, 선린대학교회
Medical Support(2)	따케오 방위사령부(헌병/육본) 기갑여단사령부	8. 8/ 8. 9 8. 10	MSO, 대구제일교회

▶ 중남미지역 국가 영어캠프 계획 (확정국가)

국가	실시 지원교회	EC기간
도미니카 공 (CA)	뉴욕 초대교회	7. 9~13
과테말라 (CA)	뉴저지 필그림교회	7. 16~20
코스타리카 (CA)	뉴저지 열방교회	7. 21~8. 3
아이티 (NA)	뉴욕 온누리교회	7. 30~8. 3
니카라과 (CA)	뉴욕 순복음교회	7. 30~8. 10
파나마 (CA)	뉴저지 성산교회	8. 13~17

▶ 앙골라(AS)남부지역사령부 LA영락교회 7. 18~31

▶ 부르키나 파소(AF)보보지역사령부 워싱턴지구촌교회 7. 30~8. 11



AMCF 회장(이필섭 장로)동정

- AMCF 회장 품育道 기독신우회(갑종157기) 특강 - 4. 24(화) 국군중앙교회
- AMCF 회장 포항 선린병원 방문 간증 - 4. 25(수) 포항 선린병원 신우회
- 한국전 참전 16개국을 위한 기도회 격려사 - 5. 22(화) 10: 30 전쟁기념관
- 기독교 TV(CTS) 방문 취재 - 5. 30(수) AMCF 회장실
- 제30회 국가유공자 나라사랑 기도회 격려사 - 6. 1(금) 11:30 국방회관
- 탄약창 다손교회 개축예배 축하 - 6. 12(화) 11 탄약창
- 한미 합동 한국전쟁기념예배 기도 - 6. 24(화) 15:30 새 에덴교회 (용인)



MSO 위원장(이준 장로) 동정

- 남지제일교회 특강 - 4. 30(월) 경남 창원 부곡파크호텔
- KMCF 공작사 방문예배 격려사 - 5. 6(주일) 공군작전사령부 오산기지교회
- KMCF Interaction 수련회 특강 - 5. 18(금) 해군작전사령부
- 한국 참전 16개국을 위한 기도회 축하 - 5. 22(화) 전쟁기념관
- 장로교 경안노회(합동) 남전도회 연합예배 간증설교 - 6. 10(주일) 경북 영덕교회

터어키의 순교현장 보고

세계 곳곳에서는 복음을 위해 치열한 영적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21C 이 시대 상상을 초월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순교당하는 전도자가 있습니다.

터어키 이즈밀 000 선교사님으로 부터 긴급한 소식과 기도요청



틸만 에케 하르트 게스케 선교사의 평소 가족사진

오늘은 지난 수요일 (4월 18일), 터키 남동부 '말라티아'라는 도시에서 일어난 순교의 사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터키에서 사역한지 9년 반 된 독일 선교사 '틸만 에케하르트 게스케' 선교사가 운영하는 지르베출판사 사무실에서 게스케 선교사를 비롯하여 2명의 터키 목사(우르육셀, 네자티아 이든 목사)가 온 몸에 칼로 난도질당

하고 목이 잘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게스케 선교사는 156군데를 칼로 난도질당하였으며, 육셀 목사는 25군데를 칼로 난도질을 당했습니다.

게스케 선교사의 미망인 수잔나 선교사는 '나는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백했으며 네자티 목사의 사모도 '나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한다. 용서한다.'고 TV와 신문에 자신의 신앙고백을 하였습니다.



범인 중 한명의 모습

살인자들은 나이가 19-20세 정도의 어린 청년들로서 3개월 전에 미리 이들을 살해하고자 출판사에 와서 '우리는 기독교인이 되고 싶다'라고 하며 접근했으며 최근에는 부활절 예배에도 참석하여 선교사들의 관심을 끄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범행 전에 권총 쏘는 연습을 했고 빵을 자르는 칼 5개를

샀으며 범행 당일, 먼저 게스케 선교사가 2-3시간 동안 의자에 팔과 다리가 뒤로 묶여 칼로 156군데를 찢리며 고문을 당하고 마지막에는 목이 잘렸는데, 이 당시에는 출판사 사무실 옆에는 변호사 사무실도 있었고 변호가였지만 주위 사람들은 대화하는 정도의 소리로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때 같은 교회 성도부부가 마침 출판사 문을 두드렸지만 인기척이 없었고 그래서 전화로 육셀 목사를 찾아 대화를 했는데 이 때 육셀 목사의 목소리가 몹시 괴로운 상태였으며, 옆에서는 고통으로 인하여 네자티 목사의 우는 소리가 휴대폰으로 들렸다고 합니다. 이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여 마침 순찰하던 경찰이 들이닥쳐 문을 열라고 할 때 이들 5명은 나머지 2명 목사의 목을 잘랐다고 합니다.



선교사의 사진이 목이 잘린채 실려 나오는 광경

몇 일전 터키개신교협의회에서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으며 '중세 시대 같은 어두움 속으로 터키는 들어갔다. 우리가 죽는다면, 그리고 죽임을 당한다면, 우리는 죽을 것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터키 개신교 공동성명

기도 제목

- 1)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중인 2명의 외국인 사역자들이 회생하도록.
- 2) 참사를 당해 순교한 네자티, 우우르, 틸만 형제의 유족들이 주님의 위로로 새 힘을 얻도록.
- 3) 현지인 교회와 외국인 사역자들이 두려움을 이기고 용기 있게 사명 감당하도록.

2007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후원금을 납부하신 분들입니다.

영수증을 대신하여 후원내용을 본란에 실습니다.

망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려하는 MSO를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월 후원자 ◆개인 (1천) 한영덕 (2천) 김권두 (5천) 김용민, 김용진, 김경기, 김태균, 김태웅, 문혜철, 박민주, 박신환, 박현정, 방홍남, 신정원(1~3월), 예원혜, 우항영, 윤준식, 이정자, 임이선, 전현우, 전호정, 정병동, 조순녀, 최재호, 최정숙, 허홍범, 홍종진 (1만) 강고은, 강길수, 강선미, 강신복, 강양순, 강정식, 강정희, 강진순, 고광남, 고정자, 고정희, 박정필, 박대용, 구성순, 구자운, 구창서, 권순일, 김경란, 김경미, 김국진, 김민희, 김구남, 김금재(3월), 김기래, 김덕수, 김병현, 김사은, 김선숙, 김수미, 김수연, 김영성, 김영아, 김영용, 김영이, 김연현, 김용민, 김우영, 김원필, 김이래, 박한진, 배윤규, 오세민, 이말섭, 김익식, 김중득, 남궁환, 안주홍, 윤여일, 이갑진, 이기문, 임민채, 임성민, 황성훈 (10만) 맹창신, 이계성, 장길명, 장상현, 정영민, 황성복

◆교회 및 기관 (5만) 대일교회 (10만) 고천성결교회, 국방대학교교회, 남원교회, 노랑진교회, 다나엘교회, 무열대학교, 서울남포교회(3~5월), 서울여전도교교회, 서울영동교회, 수원중앙성결교회, 수정교회, 예수사랑교회, 정음교회, 흥릉교회 (15만) 예성교회 (20만) 세광교회, 은혜교회, 일원동교회, 창원세광교회, 충신교회 (50만) 육군본부교회

◆특별헌금 (5만) 김대곤 (10만) 블루론동아리, 윤영수, 이운우, 최상길 (12만) 양상길 (15만) 김덕수, 윤재관 (24만) 최지용 (30만) 배영일 (34만) 배현주 (50만) 배윤규 (60만) 정병대 (65만) 이계성 (\$100) 벨리하노교회, 엘비나델리노교회 (\$200) 나성열리노교회, 흥천선교회 (\$300) 동양선교회 (\$600) LA매일교회 (\$50,000) 뉴저지성산교회

5월 후원자 ◆개인 (1천) 한영덕 (2천) 김권두 (5천) 김용민, 김용진, 김경기, 김태균, 김태웅, 박민주, 박신환, 박현정, 방홍남, 예원혜, 우항영, 윤준식, 이정자, 임이선, 전현우, 전호정(5~6월), 조순녀, 최재호, 최정숙, 최정숙, 허홍범 (1만) 강고은, 강길수, 강선미, 강양순, 강정식, 강정희, 강진순, 고광남, 고정자, 고창식, 박정필, 박대용, 구성순, 구자운, 구창서, 권순일, 김경란, 김경미, 김국진, 김민희, 김구남, 김금자, 김기래, 김덕수, 김병현, 김사은, 김수미, 김수연, 김영성, 김영아, 김영용, 김영이, 김연현, 김용민, 김우영, 김원필, 김이래, 박한진, 배윤규, 오세민, 이말섭, 김익식, 김중득, 남궁환, 안주홍, 윤여일, 이갑진, 이기문, 임민채, 임성민, 황성훈 (10만) 맹창신, 이계성, 장길명, 장상현, 정영민, 차은, 황성복

◆교회 및 기관 (5만) 대일교회 (10만) 고천성결교회, 국방대학교교회, 남원교회, 노랑진교회, 다나엘교회, 무열대학교, 서울여전도교교회, 서울영동교회, 성덕중앙교회, 수원중앙성결교회, 수정교회, 신원교회, 예수사랑교회, 의무시(MCF)3~4월, 창원세광교회, 흥릉교회 (15만) 예성교회 (20만) 세광교회, 은혜교회, 일원동교회, 충신교회 (50만) 육군본부교회

◆특별헌금 (2만) 태승규외 (4만) 조옥현 (10만) 최명순, 하정례 (12만) 채옥석 (13만) 임인창 (14만) 배현주 (15만) 김우영, 김복근 (20만) 권인도, 황성훈 (24만) 최지용 (50만) 김선진, 윤광훈 (1백만) 김두옥, 선린병원(이건우 원장), 윤여일, 이상용 (2,500만) 육군본부교회

◆개인 (1천) 한영덕 (2천) 김권두 (5천) 김용민, 김용진, 김경기, 김태균, 김태웅, 박민주, 박신환, 박현정, 방홍남, 예원혜, 우항영, 윤준식, 이정자, 임이선, 전현우, 전호정(5~6월), 조순녀, 최재호, 최정숙, 최정숙, 허홍범 (1만) 강고은, 강길수, 강선미, 강양순, 강정식, 강정희, 강진순, 고광남, 고정자, 고창식, 박정필, 박대용, 구성순, 구자운, 구창서, 권순일, 김경란, 김경미, 김국진, 김민희, 김구남, 김금자, 김기래, 김덕수, 김병현, 김사은, 김수미, 김수연, 김영성, 김영아, 김영용, 김영이, 김연현, 김용민, 김우영, 김원필, 김이래, 박한진, 배윤규, 오세민, 이말섭, 김익식, 김중득, 남궁환, 안주홍, 윤여일, 이갑진, 이기문, 임민채, 임성민, 황성훈 (10만) 맹창신, 이계성, 장길명, 장상현, 정영민, 차은, 황성복

◆교회 및 기관 (5만) 대일교회 (10만) 고천성결교회, 국방대학교교회, 남원교회, 노랑진교회, 다나엘교회, 무열대학교, 서울여전도교교회, 서울영동교회, 성덕중앙교회, 수원중앙성결교회, 수정교회, 신원교회, 예수사랑교회, 의무시(MCF)3~4월, 창원세광교회, 흥릉교회 (15만) 예성교회 (20만) 세광교회, 은혜교회, 일원동교회, 충신교회 (50만) 육군본부교회

◆특별헌금 (5만) 양윤숙 (6만) 박순숙, 유영희, 최갑순 (12만) 황유순 (15만) 김종필, 배현주, 이원복 (20만) 안봉원 (22만) 김수미 (24만) 최지용 (30만) 이동일 (50만) 강한규, 김영덕 (70만) 이준 (100만) 김진옥 (120만) 해군중앙교회 (250만) 대구북방성교회 (500만) 무명 (1,000만) 이세용

* 영수증을 대신하여 후원내용을 본란에 실습니다. 착오나 문의사항이 있거나 별도의 영수증 또는 본회 CMS 용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주시요.

MSO후원 출금 이체 신청서(CMS)

회 원 명			
전 화 번 호	자택	핸드폰	
주 소			
*은 행 명	*통장구분 <input type="checkbox"/> 개인통장 <input type="checkbox"/> 법인통장		
*예 금 주	*주민(사업자)번호		
*계 좌 번 호	*월 후원금		
*출 금 일 자	매월 <input type="checkbox"/> 5일 <input type="checkbox"/> 15일 <input type="checkbox"/> 25일	기간	<input type="checkbox"/> 1년 <input type="checkbox"/> 2년 <input type="checkbox"/> 3년 <input type="checkbox"/> 5년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 임

- ◆무통장 입금 계좌번호 (예금주: 배윤규)
 - 국민은행 477401-01-079703 · 우리은행 1002-629-510072 · 농협 094-12-149224 · 우체국 010025-02-233906
- ◆지로입금: 지로 번호 7672266 (AMCF선교협력위원회)
- ◆문의전화: 일반) 02-795-6225, 797-6763 / 군) 900-4091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 18:20)

기도로 시작한 制憲國會

○ 臨時議長(李承晩) 大韓民國 獨立民主國 第1次會議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感謝해야 할 것입니다. 宗教 思想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感謝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誠心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感謝를 드릴 터인데 李允榮 議員 나오셔서 簡單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祈禱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李允榮 議員기도 (一同起立)

이 宇宙와 萬物을 創造하시고 人間의 歷史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지요, 이 民族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祝福하셔서 感謝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을 誠心으로 感謝하나이다. 오랜 時日동안 이 民族의 苦痛과 呼訴를 들으시사 正義의 칼을 빼서 日帝의 暴力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世界萬邦의 民心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民族의 念願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歷史의 歡喜의 날을 이 時間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世界萬邦에 顯示하신 것으로 저희는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南北이 둘로 갈리어진 이 民族의 어려운 苦痛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民族 우리 同胞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速히 오기를 祈禱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願치 아니한 民生의 塗炭은 길면 길수록 이 땅에 惡魔의 權勢가 鑢大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榮光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밖에 없을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願컨데 우리 朝鮮獨立과 함께 南北統一을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民生의 福樂과 아울러 世界平和를 許諾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依支하여 저희들은 聖스럽게 擇함을 입어가지고 글자 그대로 民族의 代表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責任이 重且大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自身이 眞實로 無力한 것을 생각할 때 智와 仁과 勇과 모든 德의 根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要所를 저희들이 懇求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國會가 成立이 되어서 우리 民族의 念願이 되는, 모든 世界萬邦이 注視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問題가 圓滿히 解決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完全自主獨立이 이 땅에 오며 子孫萬代에 빛나고 푸르른 歷史를 저희들이 定하는 이 事業을 完遂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會議를 司誨하시는 議長으로부터 모든 우리 議員一同에게 健康을 주시옵시고 또한 여기서 民心의 正義와 威信을 가지고 이 業務를 완하게 도와주시옵기를 祈禱하나이다. 歷史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歡喜와 우리의 感激에 넘치는 이 民族의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榮光과 感謝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祈禱하나이다.

註 : 이 기도문은 1948. 5. 31 제헌국회 제 1차 본회 회의록에 수록된 것으로서 이승만 박사는 단상 의장석에 등단하여 전체 국회의원들에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제의하여 이운영 목사가 기도한 것임.

* 이운영 의원은 감리교회 목사였으며 사회부 총무를 역임하는 등 활발하게 일했으나 일제시대에 목사직을 강제로 박탈당했으며, 후에 국무총리 서리를 지내신 분입니다.



우) 140-600 서울 용산구 용산동 용산우체국 사서함 9호
국군중앙교회 4층 MSO (AMCF 선교협력위원회)
☎ 02-795-6225, 797-6763 / 748-4091
팩스 02-797-6764
Email: mso2004@paran.com
http://mso.or.kr